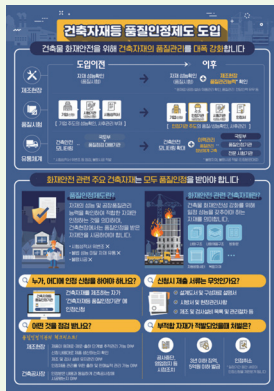


건축자재 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화재안전 고도화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2026.2.19.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 개요도
출처: 국토교통부. (2026.2.19.).
화재에 더 안전한 건축물, 절차는 간편하게
"국민이 안심하는 건축자재 관리로
바뀐다"[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자재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승인*하고, 기업의 불필요한 절차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방화 성능 기준과 제조·시공 관리체계는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화재 안전에 중요한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5개 건축자재에 대해 성능시험을 거쳐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고 제조공장과 시공현장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그간 기업들은 공장 이전이나 설비 교체 등 생산 여건이 변경될 때마다 제품별 성능시험을 재차 받아야 해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공장 이전이나 동등 이상 성능의 설비 교체 시에는 성능시험을 면제하고 서류 검토와 공장 확인만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전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이 희망할 경우 협회가 전문 의견을 제출하거나 현장 점검에 참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아울러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일체형 방화셔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 품목을 신설하였다. 방화문 기준과 방화셔터 기준에 더해 내충격 및 개폐 성능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피난 안전성과 공간 활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내화채움구조의 부적절한 시공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시공 중이거나 준공된 현장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무작위 선별 및 제보 기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조·유통·시공 이력을 QR코드와 모바일 앱으로 관리하는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을 2027년 도입 목표로 추진하고 관련 「건축법」 개정도 병행하며, 디지털 기반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자재 이력의 완전한 투명화를 실현하고, 제조·시공 단계의 체계적 점검 강화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세부운영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제·개정 시 국토교통부 승인을 득하여야 함.
- ** 성능시험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인정서를 발급하고, 인정받은 날부터 3~5년간 유효.